

# KIA 타선 폭발 얼마만이나

위즈덤 멀티홈런·오선우 투런포  
선발 전원 안타...SSG에 11-5  
위즈덤·김규성 등 호수비 '눈길'  
올려 7이닝 2실점 호투 '2승'  
김도영·김선빈 오늘 재검진



'호랑이 군단'이 시즌 첫 선발 전원안타와 함께 연패에서 벗어났다.

KIA 타이거즈는 1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장단 14안타를 터트리면서 11-5 승리를 거두고, 세 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패트릭 위즈덤이 KBO 첫 멀티포를 장식했고, 1군 콜업과 함께 2번 지명 타자로 선발 출장한 오선우의 홈런도 나오면서 모처럼 시원한 공세가 펼쳐졌다.

선발로 출격해 올라도 시즌 첫 7이닝 투구를 장식하면서 공수에서 SSG를 압도했다.

KIA가 홈런으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0-0으로 맞선 2회말 최형우가 선두타자로 나와 유격수키 낚기는 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어 타석에 선 위즈덤이 문승원의 3구째 136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좌중간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장식했다. 타구속도 173.4km, 비거리 125m의 시원한 홈런이었다.

하지만 3회초 KIA가 바로 동점을 허용했다.

올라가 이치영과 9구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고, 타구가 우측 선상을 타고 흐르면서 2루타가 됐다. 현원희의 타구도 1루수 앞에서 크게 바운드 된 뒤 외야로 흐르면서 손식간에 실점이 기록됐다.

박지환의 희생번트와 최지훈의 희생플라이가 이어지면서 올라가 두 번째 점수를 내졌다.

2-2로 맞선 5회 다시 한번 KIA의 행방이 터졌다.

1군 콜업과 함께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한 오선우가 이범호 감독의 믿음에 보답했다.

앞선 두 타석에서 1루 땅볼과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던 오선우는 2사 3루에서 문승원의 142km 중구 투심을 공략했다. 방망이를 떠난 공은 그대로 중앙 담장 넘어가면서 비거리 130m의 투런포가 됐다.

2023년 9월 12일 대구 삼성전 이후 579일 만에 기록된 오선우의 홈런이다.

상대 선발 문승원이 물러나고 송영진으로 마운드에 교체된 6회 KIA 방망이가 폭발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위즈덤이 좌전안타로 공세를 알



KIA 타이거즈 오선우가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와의 시즌 2차전에서 5회말 2점 홈런을 터트린 뒤 그라운드를 돌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렸다. 변우혁이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났지만, 좌원준의 타구가 좌익수와 유격수 사이에 떨어졌다. 김대군이 볼넷을 클라내면서 1사 만루가 됐고 김규성이 중전적시타로 5-2를 만들었다.

폭투가 나오면서 1점을 더한 KIA는 박찬호의 좌전 적시타로 8-2까지 달아났다. 박찬호의 안타와 함께 KIA는 시즌 첫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했다.

7회에는 승리에 쫓겨가는 위즈덤의 멀티포가 터져 나왔다.

위즈덤은 7회말 1사에서 송영진의 3구째 143km 직구를 공략해 비거리 125m의 중월 솔로포를 장식했다. 위즈덤은 홈런으로 3안타를 장식하면서 3타점 활약을 했다.

KIA는 8회에도 2점을 보태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확실한 타선 지원을 받으면서 7이닝 (95구) 2피안타 1볼넷 4탈삼진 2실점의 승리투수가 된 올리는 동료들의 좋은 수비에도 박수를 보냈다.

이날 KIA는 눈길 끄는 수비도 선보이면서 SSG의 추격을 저지했다. 6회 선두타자 최지훈의 때서운 땅볼 타구를 위즈덤이 누아쳐 1루 베이스를 찍으면서 아웃카운트를 올려줬고, 7회 2사에서는 김규성이 박성현의 깊숙한 타구를 잡은 뒤 1루 송구

까지 연결하면서 귀중한 아웃카운트를 만들어줬다.

위즈덤은 "타석에 섰을 때부터 기분이 좋았고 홈런을 칠 수 있어서 좋았다. (오랜만에 나온 장타지만) 계속 게임을 하면서 조절을 하려고 했고 그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이야기했다.

4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는 등 초반 뜨거운 타격을 보여줬던 위즈덤은 이후 투수들의 달라진 승부 패턴을 느끼기도 했다. 위즈덤은 "간단하게 나의 것"을 가지고 이를 극복하려고 했다.

위즈덤은 "상대 투수들이 승부하는 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며 "간단히 생각하면서 내 것에 집중하고 나만의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하며 극복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선우는 "신인 때부터 계속 1군 왔다 갔다 할 때 잘하지는 마음이었는데 준비한 대로 못했었다. 준비한 대로만 후회 없이 하자라는 마음이었다"며 "승부가 바로 들어올 것 같았다. 첫 번째, 두 번째 타석에서 변화구가 들어왔다. 내가 느끼기에 나와 승부할 때는 맞춰 잡으려는 모습이였다. 마침 실투가 왔다. 넘어갈 줄 몰랐다.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또 부상 악재... '불펜 핵심' 광도규 이탈

KIA 타이거즈에 또 다른 부상 악재가 찾아왔다. 내야진의 줄부상에 이어 좌완 불펜 광도규가 골극근 손상으로 자리를 비운다.

광도규는 지난 11일 SSG와의 홈경기에서 등판해 두 명의 타자를 상대하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등판 후 팔꿈치에 이상을 느낀 광도규는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골극근 손상 진단을 받았다.

12일 엔트리에서 탈락된 광도규는 14일 서울에서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KIA는 앞서 내야진의 줄부상에 신음했다.

3월 22일 키움과의 개막전에서 'MVP'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3월 25일 NC와의 홈경기에서는 박찬호가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박찬호가 10일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한 지난 5일에는 김선빈이 왼 종아리 근육 미세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공수에서 역할이 중요한 3명의 내야수가 연달아 빠지면서 KIA는 시즌 초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시즌 우승 원동력이 됐던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지면서 매 경기 어려운 승부가 펼쳐졌고, 불펜의 난조까지 겹쳐 투타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운영철과 양현종 등 좌완 선발이 최근 경기에서 각각 1이닝 6실점, 4.1이닝 6실점으로 부진하면서 KIA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

투타의 악재 속 지난 시즌 불펜을 굳게 지켜준 광도규까지 빠지면서 이범호 감독의 위기관리 능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또 다른 부상 소식 속 김도영과 김선빈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반갑다.

김도영과 김선빈은 14일 재검진을 받고 몸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은 다치고 난 뒤 며칠부터 상태는 괜찮다고 한다"면서도 "계속 성장해줘야 하는 선수니까 부상이 완쾌되고 올라오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퓨처스 2-3경기 잡아줬다. 경기를 한 뒤 괜찮다고 하면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끝내 열리지 않은 문...원정 3연승 불발

광주FC, 강원예 0-1 석패

광주FC의 3연승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광주FC는 13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8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앞서 홈에서 제주SK FC와 대구FC를 연달아 꺾었던 광주는 원정길에서 3연승을 노렸지만 끝내 강원 골대를 열지 못했다.

전반 시작과 함께 강원이 적극적인 공세를 나면서 광주를 공략했다. 구본철과 김강국이 연달아 슈팅을 날리며 분위기를 주도했고, 전반 16분 광주의 골대가 열렸다.

광주 진영에서 공을 뺏기면서 강원은 공세가 이뤄졌다.

오른쪽에서 이유현이 문전으로 공을 올렸고, 최병찬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다. 광주 수문장 김경민이 몸을 날렸지만, 손끝을 스친 공이 그대로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전반 35분에는 김경민이 이상현의 슈팅을 쳐내면서 실점을 막았다.

위기를 넘긴 광주가 공세를 벌였지만 안영규에 의한 강희수의 슈팅이 무위에 그치면서 0-1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 시작과 함께 안영규와 강희수를 불러들이는 이정호 감독은 브루노와 이강현을 투입해 전례 변화를 줬다.

지리한 광방전이 이어지자 이정호 감독은 후반 22분 교체 카드를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꿨다.

이정호 감독은 오후성과 최경록을 대신해 가브리엘과 박인혁을 투입해 제공권을 강화했다. 부상에



광주FC의 강희수가 13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K리그1 2025 8라운드 강원FC와의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서 회복한 가브리엘은 시즌 처음 그라운드를 밟았다.

후반 40분 가브리엘이 슈팅을 날리면서 시즌 첫 유효슈팅까지 장식했지만 득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후반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는 끝내 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0-1패배를 기록했다.

3연승은 있지 못했지만 광주는 아침 일정으로 인한 '8일 3경기' 강행군 속에 승점 6을 수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남, 외국인 듀오 활약에 연승

K리그2 부산에 2-1

전남드래곤즈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으로 연승에 성공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7R 화성FC 원정 경기에서 호난과 알베르피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앞선 부산원정에서 1-0 승리를 거뒀던 전남의 연승이다.

이번 시즌 첫 선발로 나선 호난이 최전방에서 공세를 펼쳤다. 그리고 전반 31분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호난이 왼쪽에서 넘어온 정지용의 패스를 받아 박스로 진입을 한 뒤 화성 연제민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판독 결과 페널티킥이 선언되면서 호난이 직접 키커로 나섰다.

호난은 오른쪽으로 슈팅을 날려, 골대 왼쪽을 뚫으면서 시즌 첫골을 장식했다.

1-0으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전남은 후반전 추가골 사냥에 나섰다. 후반 12분에는 '주장' 발디비아가 정강민을 대신해 그라운드에 오르면서 4경기 만에 부상 복귀전에 나섰다.

후반 36분 기다렸던 전남의 추가골이 나왔다. 코너킥 상황에서 왼쪽에서 발디비아가 공을 띄웠다. 문전 경합 과정에서 공이 뒤로 흘렀고, 뒤



화성FC와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전남드래곤즈의 알베르피와 호난이 경기가 끝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에서 기다리고 있던 알베르피가 윌터치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알베르피의 오른쪽 발을 떠난 공은 그대로 화성 골망을 흔들면서 2-0이 됐다. 알베르피의 시즌 1호골.

전남은 후반 추가시간에 화성보이노비치에게 실점은 허용했지만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2-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승리로 전남은 4승 2무 1패, 승점 14를 기록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